

名이 아니고 새로이 지은 것이라 한다.

② 古蹟調査資料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全高四尺兩膝頭間三尺ニシテ顔面ニ小破損アル外完全ナリ又高サ四尺ノ略馬蹄形ノ光背アリ光背ニハ火焰及小佛四體彫刻 シアリ라 있다. 膝幅ト一致하고 있으며 光背의 彫刻도 비슷하다. 이 記述로 보아 顔面損傷은 그다지 크지 않는 모양으로 그復原이 期待된다.

青磁雲鶴文大接

孟 仁 在

舊年末에 南行했던 同人 몇분과 함께 全州市多佳山房主人 林鍾錫氏의 案内로 同市中央洞 廉東贊氏宅에서 過限한 것인데 近來全州地方에서 出土한 것으로만 傳할뿐 出土地는 明確치 않다. 높이 七·六cm 지름 一九cm의 通常的인 크기지만 內面全面이 象嵌된 雲鶴文으로 채워진 것은 이 大接의 獨特한 點일 것이다.

(1) 內面등은 바닥에 날개를 활짝 펴고 C字形으로 꾸부러진 목을 엮어서로 反對方向으로 목을 빼고 있는 蟠結狀의 雙鶴이 整然히 圖案化되어 있다. 黑·白土象嵌의 가는 線은 鶴의 平面圖처럼 나타나 있다.

器面四方에는 네마리의 飛鶴이 黑·白으로 象嵌되어 있다. 이 鶴들은 엮바뀌어 天·地를 向하고 있으며 木은 S字形으로 뿔쳐 있고 白土의 羽毛表出은 靑空에 浮上한 민들레씨를 聯想케 한다.

이 鶴文間의 全面에는 垂直雲文이 가득차 있는데 約 六十五片의 白土雲文은 口邊가까이 一面이 넓어질수록 크다. 口緣에는 唐草文帶가 白土로 象嵌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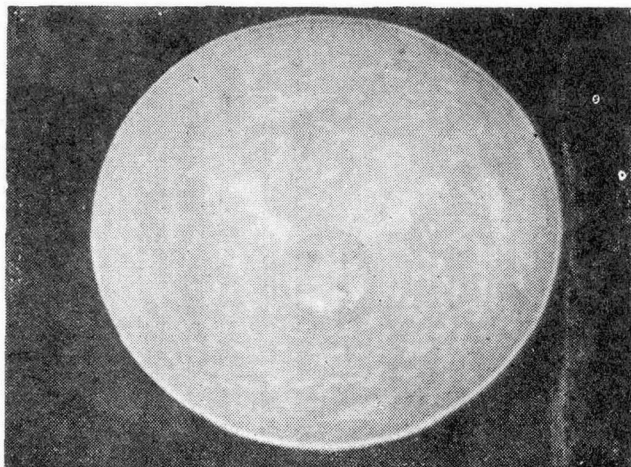
(2) 外面四方에 圓圈을 黑·白土로 象嵌하고 그 안에 한송이씩의 牡丹折枝를 白花黑葉으로 嵌入하였다. 圓圈의 間地에는 寶相唐草文을

線彫하고 이에 白土를 嵌入 文樣을 바탕 그대로 逆表出시켰다. 口緣에는 內緣에서와 같은 唐草文을 白土象嵌하였고 外底 돌레인 蓮瓣帶를 黑·白線으로 嵌入하였으며 外底엔 세개의 큼직한 珪石이 남아 있다.

全面에 釉水裂은 거의 없으며 特히 內面의 釉面은 沈靜한 碧玉色을 띄고 있어 秘色 그대로라고 할 수가 있다. 外面의 釉色은 푸른 빛이 若干 減殺되어 있으나 釉裂이 없는 點에서는 內面과 함께 거의 完全無缺하다고 할 수가 있다.

三

이 大接의 出土地는 勿論 明白치 않으나 그 產地는 出土地에서 멀지 않은 扶安窯로 생각할 수가 있다. 全體의 形狀은 從來 國寶로 되어 있던 國立博物館의 大接에 떨어지지 않으며 그보다 一—二cm쯤 작은 듯하나 器壁을 이루는 弧線은 부풀어 있으며 釉面은 더욱 淸冽하다. 外面의 裝飾法이나 아래로 雙 鷄이라던가는 通例의 大接들과 다를 바 없으나 內面의 裝飾은 雲鶴을 主題로 한 點이 異例의이며 雲文을 背景으로 한 鶴文을 圓圈等으로 孤立시키지 않아 自由롭게 配置한 點은 非圖案的인 裝飾效果를 나타내어 비단처럼 화려하다. 이 大接은 그 品格으로나 技巧로나



最上級青磁로서 조금도遜色이 없으며 그製作도 勿論 象嵌全盛期에 들 것이다.

案內해주신 林鍾錫氏께 깊이 感謝한다.

青銅佛頭一例

鄭 永 鎬

一九六〇年 八月 慶北月城郡祇林寺에서 同人 黃壽永氏와 青銅佛頭의 一例를 調査한 바 있는데 비록 佛身과 分離되어 그 關係知見을 喪失한 遺品이나 各部의 手法으로 보아 秀作이며 年代가 高古하게 推定됨에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 傳聞한 바에 의하면 (僧侶를 談話) 數年前 同寺境에 隣接한 溪谷에서 發見된 바라 하는데 各部에 若干의 傷痕이 보이며 河川에 埋沒되었었던 탓으로 後頭의 圓孔內에는 아직도 砂粒이 들어 있다. 全高二〇cm이며 螺髮은 굵은편인데 頭頂에는 큰 圓의 肉髻가 있고 白毫는 없다. 弧形의 兩眉를 따라 그 위에 細線一條를 刻하였고 眉部에 이어진 鼻樑은 오통하나 下端이 缺損되었으며 口唇도 磨損되었다. 눈은 가늘게 뻗는데 鳳眼과 이마에 (白毫를 그렸은) 墨彩色이 보이는 것



은 最近의 것으로 推定된다. 이마는 넓고 兩耳는 길게 늘어졌는데 左便(向左)은 完全하나(耳長九cm) 右便의 耳朶는 缺하였다.(六·二cm) 全面에 彩色은 없으나 青銹가 보인다. 相好는 둥근편이며 豐滿

한 양볼에 微笑가 어리어 顔容에 慈悲가 넘친다. 豊麗하며 整齊된 彫法으로 미루어 보아 年代는 羅代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이 遺品은 一九六二年一月五日 同人 鄭明鎬氏와 함께 再調査한 바 있으며 그後 同年七月에 文化財管理局 文應國局長의 周旋으로 移定되어 現在는 國立博物館 慶州分館에 收藏되어 있다. 貴重한 資料가 이렇듯 安全하게 保存되었음에 對하여 多幸한 일이라 할 것이다. 實測値는 頭(廣一五cm 厚一三cm) 肉髻高四·七cm 이마넓이 一〇cm 볼넓이 九cm 鳳眼 三cm 頸部(徑)七·五cm

公州 萬壽寺의 三尊石佛

金 永 培

鳥致院에서 大田街道인 燕岐郡 錦南面 大平里에서 下車하여 東北間方으로 約 八km쯤 山中으로 들어가면 燕岐郡 錦南面 黃龍里가 나시고 俗稱 西山이라고, 하는 山中腹에 萬壽寺라고 하는 조그마한 庵子가 하나 있는데 佛堂의 前庭에 三尊石佛이 保存되어 있어서 簡單히 紹介하여둔다.

이 石佛은 原來이 庵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西紀一九四〇年 戊辰年에 當時 庵子の 住持였던 徐大師가 (現在는 死去) 俗稱 善安寺라고 하는 절에서 옮겨온 것이라 하는데 善安寺의 所在地도 모른다

